

<서평>

『오리게네스 기도론』

이두희 번역, 장용재 주해,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편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조재천*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원초적이고 중요한 실천방식 중 하나이다. 성서를 읽거나 쓰거나 연구하는 일은 글을 깨우친 사람만 할 수 있다. 찬송을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기 춤을 추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적당한 재능과 훈련을 요구한다. 반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은 초보적인 사고능력과 의사소통의 능력만 지니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도가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상대로 의사를 전달하려 할 때 갖추어야 하는 마땅한 마음가짐이 있기 마련이다. 기도가 작동하는 원리와 방식을 잘 이해할수록 기도의 효력을 그만큼 더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픈 욕구는 타고난다고 할 수 있지만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스스로 깨달아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다. 성서에 주기도문을 비롯해서 기도를 소재로 한 많은 비유, 권면, 내러티브가 나온다. 여기에 더해서 시대와 장소마다 기도에 관한 새로운 깨달음, 경험, 가르침들이 주어졌고, 신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다. 기도를 소재로 삼아 많은 글이 쓰여졌지만, 오리게네스의 ‘페리 에우케스’(περί εὐχής)¹⁾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가장 이른 시기에 저술된 기도론에 속한다(233/4년).²⁾

* 전주대학교 조교수, 신약학

1) 연구서들과 참고서적에서 통상적으로 라틴어 명칭인 *De oratione*가 사용된다.

1. 책의 특징점

이 서평의 대상인 『오리게네스 기도론』(이하 『기도론』)은 새물결플러스 출판사에서 기획하고 있는 ‘그리스도교 문헌총서’ 시리즈 중 첫 번째 책으로 나왔다. 먼저 확인할 사항은 이 책이 오리게네스 기도론의 최초 국역은 아니라는 점이다. 2011년 두란노아카데미에서 펴낸 ‘기독교고전총서’ 시리즈 중 일부로서 오리게네스의 『기도』가 번역 출판된 바 있다.³⁾ 하지만 후자는 1953년 출판된 영어 번역판의 중역(重譯)이며,⁴⁾ 원문으로부터의 직접 번역으로는 새물결플러스 판이 최초이다.

새물결플러스 판은 몇 가지 더 특징점을 갖는다. 영어권에서 그리스어와 라틴어 고전 문헌 출판으로 잘 알려진 로옉고전문헌시리즈(the Loeb Classical Library)는 원문과 영어번역을 병행대조한 편집이 유명한데, 국내에서는 이제껏 그런 편집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에 나온 새물결플러스 판은 비평본문(the critical text)에 기초한 그리스어 원문과 우리말 번역을 한 눈에 대조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국내 독자들에게 신선하고 유용할 것이다. 그리스어를 해독할 줄 아는 고급독자는 우리말 번역을 참조하면서 원문 텍스트를 빠른 속도로 읽어 내려갈 수 있고, 이제 막 그리스어를 배운 신학생 또는 그리스어 배운 자가 오래된 목회자들은 우리말 번역을 주 텍스트로 읽으면서 그 의미가 모호할 때 언제든지 원문의 표현을 확인할 수 있기

2) 카르타고의 테르툴리아누스(c. 155-240)의 초기 저작인 '기도론'이 아마 오리게네스의 것보다 몇 십년 앞설 것이다. 하지만 콰스텐은 오리게네스의 기도론이 "the oldest scientific discussion of Christian prayer in existence"라고 평했다. Johannes Quasten, *Patrology*, Vol. 2, *The Ante-Nicene Literature after Irenaeus*. (Allen, Texas: Christian Classics, 1983), 66.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는 오리게네스보다 이십 년 정도 후에(252년) 『주기도문에 관한 논고』를 저술했다.

3) 오리게네스, “기도”, 『알렉산드리아 기독교: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 정용석, 주승민 역, 기독교 고전 총서 2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217-458.

4) H. Chadwick and J. E. L. Oulton, eds., “On Prayer,” *The Alexandrian Christianity: Selected Translations from Clement and Origen*,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26 vols. (Louisville: The Westminster Press, 1953-69), 2:180-387.

때문이다.

텍스트와 함께 제공된 각종 주석과 해제 또한 이 책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들이다. 그리스어 텍스트에는 영어 알파벳 문자를 사용한(a, b, c, ...) 주석이 달려있다. 이 주석은 본문에 성서(칠십인역) 구절이 인용되었음을 표시해 주고, 인용된 책명과 장절을 각주에 표기했다. 우리말 번역부분에는 앞서 언급한 성서관주 외에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1, 2, 3, ...) 별도의 주석이 달려 있다. 그리스어 어휘나 구문에 있어서 번역이 까다롭거나 둘 이상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표현들, 오리게네스의 서술 이면에 자리잡은 문화적, 신학적 배경들, 그리고 연관된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참조할 만한 다른 문헌들도 각주에 소개된다.

본문 앞에는 ‘작품해제’ 두 편이 수록되어 있다. “오리게네스의 기도 이해”(19-63쪽)와 “기도와 섭리”(65-95쪽)가 그것인데 둘 다 독일에서 『기도론』을 연구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장용재 박사의 글이다.⁵⁾ 첫 번째 글은 오리게네스의 생애와 저술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기도론』의 구조와 내용을 개관한다. 본문을 읽기 전 『기도론』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본문을 읽고 나서 내용을 음미하고 정리하는 데도 유익하다. 두 번째 글은 기도신학의 핵심 논제인 신의 섭리와 기도의 효력의 문제를 고대 그리스-로마의 문화적, 사상적 정황에서 살펴보고 오리게네스의 대답을 논구한다. 티로스의 막시모스는 중기 플라톤 철학적 입장에서, 그리고 세네카는 스토아 철학적 입장에서 기도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주장을 대변하는데 이런 당시의 사상적 조류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으면 서도 자유롭고 의지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오리게네스의 주장을 『기도론』으로부터 추출한다.⁶⁾

5) Y. J. Chang, *Origenes: Über das Gebet. Studien zur Theologie und Frömmigkeit in der frühen Kirche* (diss., Philipps-Universität Marburg, 2011).

6) 장용재 박사는 이 해제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 일부를 발전시킨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다음 논문을 기초로 한 듯하다. “기도와 섭리, 모순인가? 조화인가? 막시모스와 세네카, 그리고 오리게네스의 기도이해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29 (2011), 7-41.

본문에 이어서 제공된 『기도론』 연구를 위한 참고문헌 목록(515-531쪽)에는 비평본문을 비롯한 1, 2차 문헌이 제시되어 있어서 차후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도론』 자체의 구성은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본문만 사백여 쪽을 차지하지만 그리스어 원문과 양면 대조 편집을 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말 번역문의 분량은 이백 쪽 정도이다. 간략한 ‘도입’(I-II)에 이어 본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기도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III-XVII) 그리고 ‘주님의 기도 주해’(XVIII-XXX)인데, 후자가 전자보다 약간 더 길다. 마지막으로 자리 잡은 부분은(XXXI-XXXIV) ‘후기’라는 우리말 제목에도 불구하고 본론 부분의 반복이나 요약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유용하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도의 마음가짐과 몸의 자세, 기도의 장소, 기도의 방향, 그리고 공중기도의 네 주제’ 등 보다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기도에 관한 지침이 나오는데, 실제 기도생활에 바로 적용할 만한 내용이 많다.

번역서의 가치와 수준은 곧 번역의 가치와 수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기독교고전총서’ 시리즈와 이 책의 본문을 비교해 보면 영역본에서 중역된 글과 원문에서 바로 번역한 글의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진다. 그 차이는 단지 문체가 다른 정도를 넘어선다. 일반적으로 원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고 생생하게 파악하고 표현하는데 있어서 원문으로부터의 직역이 중역에 비해 우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이 책의 우리말 번역은 정확성, 적확성(的確性), 그리고 우리말 구문의 자연스러움 등 번역 자체의 질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하다. 그것은 주 번역자인 이두희 박사과 초벌 번역을 감수한 장용재 박사의 전문성이 협력한 결과이다.⁷⁾ 게다가 ‘역자 서문’에 밝힌 대로 이 책의 번역 출간 계획 이전에, 초대교회사와 서양고전학 전공자들 여럿이 함께 강독하면서 초벌 번역이 진행되었다. 일종의 위원회

7) 국내 신학자, 성서학자를 통틀어서 드문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서양고전학(classical studies)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두희, “아이스킬로스와 에우리피데스의 Agon: 아리스토파네스의 <개구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9). 이두희 박사는 고등교육기관으로 국내 유일의 서양고전학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서양고전학 협동과정에서 수학함으로써 탄탄한 고전 그리스어와 라틴어 해독 능력을 갖추었다.

번역을 거친 셈이기 때문에 번역의 정확성은 물론 우리말 표현의 자연스러움도 그만큼 더 확보될 수 있었을 것이다.

깔끔하고 정확한 번역에 더해서 한 두 가지 장치가 가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우선 본문의 문장 서술에는 ‘해라체’ 대신 ‘하십시오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칭찬할 만하다. 첫째, 『기도론』은 본래 오리게네스가 그의 측근인 암브로시우스와 타티아나에게 헌정한 편지였다. ‘하십시오체’가 그러한 역사적 저술 정황에 잘 어울린다. 둘째, 현대 독자들에게도 ‘하십시오체’는 유익이 있다. 보다 생생하고 친밀한 느낌을 가지고 실제 설교자나 선생이 바로 앞에서 가르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독자가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또 한 가지 특징은 매 소단락이 시작할 때 제공되는 요약문이다. 그 요약문은 소단락 번호에 주석을 붙인 다음 거기에 연결된 각주에 서술되어 있다. 그렇게 독자는 소단락을 읽기 전에 거기에 나올 내용을 미리 조망할 수 있다.

어느 책과 마찬가지로 이 책에도 한계와 약점은 있다. 그 중 주요한 것 하나는 문자적 번역에 치중하느라 우리말 문장이 다소 길어지고 종속절이 여러 겹 쌓이는 현상이다. 번역문이 길고 복잡한 이유는 원문이 그러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원문에 하나의 긴 문장이라 하더라도 번역하는 과정에서 짧고 단순한 여러 문장으로 쪼개면 우리말 어법에 맞는 읽기 편한 글이 될 수 있다. 물론 어떤 번역이든지 원문(source language)과의 일치도와 번역된 문장(target language)의 어법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일은 어렵다. 고대 그리스어와 한국어는 어순과 동사 활용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더 어렵다. 현재 이 책의 우리말 번역은 그리스어를 어느 정도 해독할 줄 아는 독자에게 최적화되어 있다. 약간 부자연스럽고 긴 우리말 문장에서 그리스어다운 느낌을 느끼면서, 의미가 단번에 이해되지 않는 우리말 번역을 만나더라도 병행하는 원문을 살핍으로써 모호함을 금세 해소할 수 있다. 그런 독자는 오히려 이 책의 우리말 번역이 정확하다고 판단할 것이며 장황한 번역문은 불가피하다고 여길 것이다. 반면, 그리스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말 번역 본문만을 읽어야 하는 독자들이 많은데, 뜻을 명확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을 만날 때 처음부터 다시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어서 뜻을 파악할 수 밖에 없다.

특장점이면서 동시에 약점인 것도 있다. 소단락 번호에 주석 번호를 달고 각주에 해당 단락의 내용 요약 제공한 것은 좋으나 이 장치를 각주에 두기 보다는 본문에 배치하는 편이 더 나았겠다(이른다면 소단락 번호와 본문 사이). 독자들은 각주번호와 그에 연결된 각주의 단락요약 부분이 있음을 눈치채지 못하기 십상이다. 새물결플러스 편집부가 가독성을 염두에 두고 각주번호를 희미한 글씨로 처리한 점도 일면 이해가 되지만, 독자들은 본문에 각주번호가 있는지조차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고 그래서 각주에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제 때에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각 소단락의 요약서술을 각주에 두지 말고 각 소단락 본문 바로 앞에 배치한다면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접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바란다면, 색인(성서 색인, 주제어 색인)이다. 외국의 경우 색인은 학술서적에서는 거의 기본요소로서 빠질 수 없는데, 이제는 우리말 학술 서적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으리라 기대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2. 『기도론』과 성서해석

오리게네스는 ‘성서학의 창설자’로 불릴 만큼 독창적이고 치밀한 성서해석을 시도했고,⁸⁾ 그의 저술 대부분은 성서본문에 대한 주석적, 과학적 연구로부터 출발한다. 이 책도 예외가 아닌데 『기도론』이라는 제목은 단지 이

8) “He was *the founder of biblical science*, and, though not absolutely the first great biblical commentator, he first developed the principles which exposition was to follow and applied the fashion of methodical explanation on the widest possible scale.” G. L. Prestige, “Lecture 3: Origen: or, The Claims of Religious Intelligence,” *Fathers and Heretics*, Bampton Lectures 1940 (London: SPCK, 1940), 43.

저술이 다루는 소재를 나타내며 그 논증 전개에 있어서는 성서주석에 가깝다. 거의 매 문장에 성서로부터 인용한 단어, 구절, 문장이 빠지지 않는다. 신구약을 오가며 유사한 어근, 철자, 의미를 지닌 단어들을 연결하는 방식인데 가장 철저한 관주(cross reference) 혹은 성구색인(concordance)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상호본문성(intertextuality)이 발견된다. 군데 군데 오리게네스 특유의 우의적 해석(allegory)과 플라톤적 세계관, 도덕관이 결합되지만 그렇다고 엄밀한 역사문법적 분석이 도외시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기도론』의 본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은 마태복음 6:9-13과 누가복음 11:2-4에 대한 주석의 성격을 띤다. 하나의 사례로 ‘XXVI.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에 대한 오리게네스의 해설을 살펴보자.

우선 오리게네스는 마태복음 6:10의 이 청원이 병행본문인 누가복음 11장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이 청원이 실은 마태와 누가가 공유하는 첫 두 청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리게네스는 발견한다. 즉,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달라는 청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세 청원 모두 ‘하늘’의 현실이 ‘땅’으로 확장되는 것 혹은 ‘땅’의 현실이 ‘하늘’의 현실로 변화되는 것과 관련된다.

문자적으로 이 청원을 드리는 ‘우리’ 즉 신자들은 ‘땅’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은 땅에 있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어떤 것도 행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신자는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고(고전 15:49), ‘하늘 나라를 물려받는다’(마 25:34; 7:21). 본래 땅에 있는 신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구별되지만 신자가 “이 모든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준비시킬 때” 하늘의 현실은 곧 땅의 현실이 된다(XXVI. 1-2).

더 나아가 ‘하늘에 있음’과 ‘땅에 있음’은 “장소가 아닌 선택”에 따라

규정된다(XXVI.5). 신자는 ‘하늘에서 시민권’을 가지고(빌 3:20),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하늘에’ 마음을 두고(마 6:20-21; 눅 12:34), ‘하늘에 속한 그 분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므로 하늘에 속했다. 반면, 악한 영들은 비록 그들의 존재는 초월적이지만 “하늘에 속하지도 않고 악한 성향으로 인해 하늘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 속했다. “죄를 짓는 자는 어디 있든지 간에 땅이고 ...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구원하는 영적인 법을 거역하지 않는 자는 하늘이다”(XXVI.6). 따라서 오리게네스에게 있어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땅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 이미 영적 실존을 기준으로 한 땅과 하늘의 구분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청원은 우선 신자 개인과 신자들의 공동체가 하늘의 원리를 더욱 온전하게 내면화해야 한다는 도전으로 전환된다: “만약 우리가 아직 죄 때문에 땅이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올곧게(*διορθωτικῶς*) 펼쳐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이 청원은 선교의 요구로 발전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땅이 아니라 이미 하늘이라고 여겨진다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말하자면 더 나쁜 자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말하자면 땅을 하늘로 만들도록 구하여, 더 이상 땅은 없고 모든 것이 하늘이 되도록 합시다”(XXVI.6).

기본적으로 오리게네스가 이 세 번째 청원을 해설하는데 동원하는 논증의 방식은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가 성서에 사용된 용례들을 살펴서 전자가 단지 물리적, 공간적 대상을 지시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의 속성을 표현하는 대유법적 혹은 제유법적 심상임을 포착하는 것이다. 마치 랍비들이 ‘계제라사와’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성서 전체에 유사한 단어와 개념들을 꿰뚫어 오리게네스도 성서가 하나의 책으로서 자기충족적인 의미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 것 같다. 또한 성서해석에 관한 그의 대표적 저술 『원리론』(*De principiis*)⁹⁾ 4권에서 설명한 것처럼 오리게네스는 여기에서도 문자적, 문법적 의미를 건너뛰지 않고 그것을 일차적으로 관찰한 다음, 보다 포괄적이고 교리적인 혹은 ‘영적인’ 의미로 나아가는 방식을 취한다.

9) 『원리론』, 이성효 외 3인 해제, 역주 (서울: 아카넷, 2014).

3. 『기도론』의 효용

오리게네스의 『기도론』은 21세기 한국교회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새벽기도, 철야기도라는 독특하고 강렬한 기도의 영성을 지니고 있다. 산 기도의 전통은 이제 대다수 신자들에게 아득한 추억 혹은 영적 무용담이 되어 버렸지만 중요한 선택 혹은 어려운 상황 앞에서 기간과 시간을 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한다든지, 부활절, 신년 등을 기해서 '특별새벽기도'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다. 세계 다른 어느 교회보다 기도는 아직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중심에 있다. 그리고 기도는 어디까지나 몸소 행하는 것, 그것을 위해 시간을 내고 힘을 들여 해야 할 어떤 행동이지 배우거나 연구해야 할 신학적 주제라고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과업으로서의 기도, 몸으로 하는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도 기도의 의미와 목적을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궁구하는 일은 필요하다. 성서해석에서 해석자의 경험과 성서본문의 의미가 서로를 밝히며 해석학적 나선을 이루듯, 기도의 행위와 기도에 관한 성찰은 그렇게 서로를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

기도의 욕구가 원초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생존의 욕구, 혹은 물질적,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욕구가 원초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눈 앞에 닥친 곤란을 극복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초월자에게 기대어 호소하려는 욕구는 인간의 보편적 욕구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욕구가 그리스도교 신자의 기도를 충동하는 가장 강한 힘이 된다는 사실도 부정하기 어렵다. 문제는 그렇게 충동된 기도가 언제까지나 거기에 머무를 때 발생한다. 그래서 천 칠백여 년 전 한 교부가 성찰한 기도의 원리가 21세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하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신앙을 추구하는데 오리게네스의 글이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오리게네스, 기도론, 주기도문, 우의적해석, 상호본문성

<Key words>

Origen, *De oratione*, the Lord's prayer, allegory, intertextuality

참고문헌

- 염창선, “오리게네스의 ‘Peri Euches’의 기도 이해와 의미”, 『한국교회사학회지』 28(2011), 35-56.
- 오리게네스, “기도”, 『알렉산드리아 기독교: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 정용석, 주승민 역, 기독교 고전 총서,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2:217-458.
- _____, 『원리론』, 이성호 외 3인 해제, 역주, 서울: 아카넷, 2014.
- 유은호, 『에바그리우스의 기도론 연구-오리게네스의 기도론과의 비교-』, 서울: 예수영성, 2019.
- 장용재, “기도와 섭리, 모순인가? 조화인가? 막시모스와 세네카, 그리고 오리게네스의 기도이해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29 (2011), 7-41.
- Y. J. Chang, *Origenes: Über das Gebet. Studien zur Theologie und Frömmigkeit in der frühen Kirche*, diss. Philipps-Universität Marburg, 2011.

<초록>

『오리게네스 기도론』 서평

조재천

(간주대학교 교수)

이두희, 장용재 박사가 번역하고 해제한 『오리게네스 기도론』(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은 2011년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된 동일한 저술의 국역 판에 비해서 몇 가지 특징점을 갖는다. 그리스어 원문으로부터의 직역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 번역 자체의 정확성과 가독성도 확보했다. 그리스어와 우리말 번역을 양면에 대조한 편집은 우리나라 출판현실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았지만, 우리 신학계의 규모나 성숙도로 보아 필요하고도 유용한 방식이다. 서두에 첨가된 두 편의 ‘작품해제’와 책 말미에 붙은 참고문헌 목록, 그리고 본문의 소단락마다 덧붙여진 단락요약은 독자에게 적잖은 도움이 된다. 우리말 번역의 가독성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고, 학술서적으로서 색인이 누락된 점은 아쉽다. 『기도론』이라는 책의 소재 혹은 성격이 한국교회와 신학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오리게네스리는 대 신학자의 저술이니만큼 어떤 책이든 번역의 효용은 충분하다. 이 책에서도 성서주석가로서 오리게네스의 독창적인 면모가 엿보이며 그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신자들의 신앙을 성숙으로 이끄는 데에도 기여한다.

<Abstract>

A Review of the Korean Translation and Commentary of *Origen's On Prayer*

Prof. Jaechon Cho
(Jeonju University)

Origen's On Prayer with Korean translation, notes, and introductions (Seoul: Saemulgeolplus, 2018) is a worthy successor of an existing Korean translation of the same treatise. The latter is translated from an English translation of the Greek text (H. Chadwick and J. E. L. Oulton, eds., "On Prayer," *The Alexandrian Christianity: Selected Translations from Clement and Origen*,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26 vols. [Louisville: The Westminster Press, 1953-69], 2:180-387), while the new edition is a direct translation of the Greek original. Hence it should be preferred simply based on its accuracy. Translation itself is superb by virtue of the translator's (Dr. Doo Hee Lee) unique academic credential (classical studies background) and the cooperative work by the Greek reading group which initiated this project. The format of the new edition is also inherently better as it features a Greek-Korean parallel layout, which will greatly benefit students, pastors as well as scholars. The two introductory essays contributed by Dr. Yong Jae Chang, who wrote his dissertation on this very work of Origen, are insightful and informative. One missing element as a scholarly publication is indices, and the Korean style of the translation could be improved. Overall, this volume will enrich the well-known fervor

for prayer among Korean Christians, and enliven further studies on Origen and patrology in general among Korean theologians.